

Part 1 — 돈의 종말 (Q&A)

2월 1주차 Q&A 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시장 유지하기

· 정리 2026-05-13

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부채를 절반 커버한다? 그 돈은 어디서

박종훈의 경제로드맵 네 번째 Q&A 시간. 수강생 민바69님의 한 가지 질문이 향한 곳은 시대 흐름의 핵심입니다 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부채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나.

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7년 만에 60배 폭증했습니다.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2029년 \$2조 시장 전망, 글로벌 금융사는 2030년 \$4조 전망. 트럼프 임기 발행 국채 \$6~10조의 절반 커버 가능한 규모입니다.

그런데 강사가 짚는 핵심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? 3 물줄기를 따져봐야 시대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.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미국 돈이 아닌 신흥국 예금이거든요.

한국도 신흥국 대접에서 못 벗어나는 시대 — 25 하반기 환율 1,460원 돌파 시 국내 거래량 5배 증가가 그 신호입니다.

60배

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7년 만에 폭증한 배율 (\$50억 → \$3,100억)

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? — 트럼프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따져봅시다.

Q1 도입 — 미국 부채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결

수강생 민바69님의 질문이 시대의 핵심을 짚었습니다.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 문제 —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데 사줄 주체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.

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답이 될 수 있다는 관찰이 있습니다. 제가 \$100을 들여 서클 USDC를 100코인 사면, 서클이 그 \$100으로 미국 1년 이하 단기 국채를 사주거든요. 시장이 커지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— 미국 국채를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 될 수 있지 않나.

강사 답은 정밀합니다 — 테더·서클이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건 진짜 맞습니다. 다만 "이게 미국 부채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지"는 다양한 측면에서 따져봐야 합니다.

다음 카드부터 시장 폭증의 정량을 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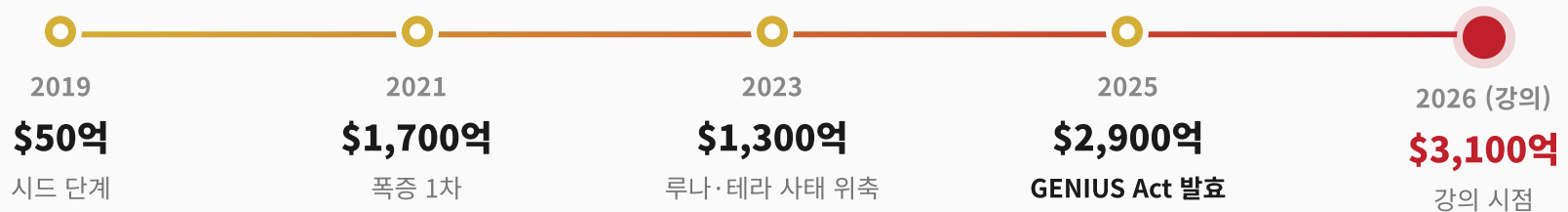
스тей블 코인 7년 60배 폭증 — GENIUS Act 트리거

스тей블 코인 시장 규모 추이가 충격적입니다. 2019년 \$50억밖에 안 됐던 시장이 2026년 강의 시점 \$3,100억까지 — 7년 만에 약 60배 성장.

2020 → 2021 사이 5~6배씩 커지는 폭증 흐름이 있었고, 2022~2023엔 한국 발 루나·테라 사태로 2년 위축. 그러다 2024년 \$2,000억으로 회복, 2025년 GENIUS Act 발효로 \$2,900억까지 폭증 — 시장 자체가 진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셈입니다.

강사가 "한두 달 사이 빠르게 성장하는 게 GENIUS Act 영향"이라 평가한 만큼 제도권 편입의 폭발력이 본격 발현 중입니다.

스тей블 코인 시장 (\$억) — 7년 60배



현재 시장 \$322억 — Tether 압도적 1위

강의 후 4개월 만에 시장이 더 성장했습니다. 2026-05 기준 [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\\$322.74억](#) — 강의 시점 \$3,100억 대비 \$200억 추가.

USDT(Tether)가 압도적 1위 — \$189.63억 시장 점유율 58.76%. USDC(Circle) \$78.96억 2위로 약 24% 점유. **Tether 단독으로 미국 단기 국채 \$117B 보유** — 강사가 짚은 "단단한 기둥" 구조가 정량 검증되고 있습니다.

Blackrock BUIDL \$2.99B + Circle USYC \$2.98B 토큰화 국채 펀드까지 합세하면 미국 국채 시장의 신규 수요원으로 본격 자리 잡는 흐름. (+1)

■ 스테이블 코인 시장 2026-05 — 발행사별

발행사	시가총액 / 보유
USDT (Tether)	\$189.63억 (58.76% 점유)
USDC (Circle)	\$78.96억 (~24%)
Tether 미 국채 보유	약 \$117B (단단한 기둥)
BUIDL (BlackRock) + USYC	각 ~\$2.99B 토큰화 국채 펀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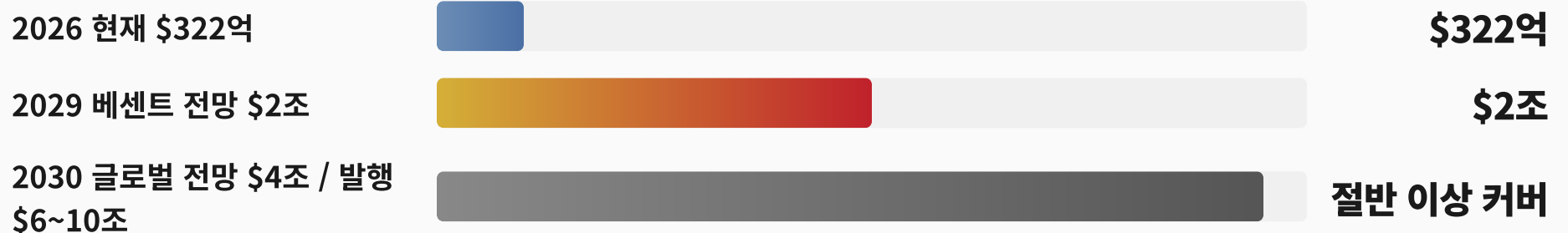
베센트 2029 \$2조 / 글로벌 2030 \$4조 전망

그러면 앞으로 어디까지 커질까요?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2029년 \$2조 시장 전망,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2030년 \$1.9~\$4조 전망. 이 정도면 미국 국채 시장 뒷받침에 충분한 규모인가?

트럼프 임기 동안 발행될 국채를 따져보면 — 최저 \$6조 (감세 + 바이든 시기 지출 유지), 보통 \$7~8조, 최악 \$10조 (국방비 \$9천억 → \$1.5조 인상 등 트럼프 추가 지출).

강사 결론: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\$3조까지 성장하면 **트럼프 임기 발행 국채의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이상을 커버** 가능 — 막대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. 다음 카드에서 "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따져봐야 한다"는 강사의 핵심 질문을 봅니다.

■ 스테이블 코인 전망 vs 트럼프 발행 국채



\$3조 시장이면 트럼프 발행 국채 절반 이상 커버 가능

그 돈은 어디서? — 3 물줄기

강사가 짚는 시대 핵심 질문 —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?
우주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. 3 물줄기를 따져봐야 합니다.

첫째 **미국 은행 예금** — 트럼프 입장 최악. 미국 돈이 빠지면 미국 경제에 하등의 도움 안 됨. 둘째
미국 MMF — 미국 단기 자금 운용 최대 시장. 이것도 트럼프에게 좋지 않음.

셋째 **물가 상승률 높은 개도국 예금** — 아르헨티나·튀르키예·브라질 등. 자국 통화 불신으로
예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 매수. 이게 **트럼프의 진짜 목표**입니다.

■ 스테이블 코인 자금 3 물줄기

물줄기 1

미국 은행 예금

트럼프 입장 최악 — 미국 돈
빠짐



물줄기 2

미국 MMF

단기 자금 운용 — 미국에 좋
지 않음



물줄기 3

개도국 예금

**트럼프의 진짜 목표 — 신흥
국 약탈**

트럼프 진짜 목표 = 신흥국 약탈

스태이블 코인의 진짜 목적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. 미국 돈이 빠져나가서 스태이블 코인을 사주는 건 미국 경제에 도움 안 됨 — 트럼프는 미국 예금이 빠지길 원하지 않습니다.

대신 신흥국 사람들이 자국 통화 불신으로 예금을 스태이블 코인으로 옮기게 유도하는 게 정책 의도. 신흥국 사람들이 자국 은행에서 예금 빼서 스태이블 코인 매수하면 그 돈이 미국 국채를 지탱하는 구조가 됩니다.

강사가 "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물가 상승률이 높은 개도국의 예금을 털어먹자"라고 정확히 진단합니다. 미국이 싼값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지만 — 신흥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.

구체적으로 어떤 신흥국이 영향받고 있는지는 § 12에서 정량 자료(아르헨티나·튀르키예)로 검증해보겠습니다. 그 전에 시대의 또 다른 큰 변화 — SWIFT 우회 메커니즘을 봅니다.

강사 말 그대로 "여기서 스태이블 코인의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는" 시대 흐름.

SWIFT 우회 — 수수료 1/10

시대의 큰 변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거래에서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.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굉장히 싸입니다.

전통 SWIFT 망 수수료가 2~3%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0.2~0.3% — **1/10** 수준. 그래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SWIFT 망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.

결과 —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제재할 때 "SWIFT 망에서 너 쫓아낼 거야"라며 겁박해온 게 더 이상 협박이 되지 않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. 러시아처럼 완전히 쫓아내는 강력한 제재도 이제 효과 ↓.

강사가 짚는 묘한 상황 — 달러 패권은 강해지는데 미국의 장악력은 약해지는 역설.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.

SWIFT vs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



달러 패권은 강해지지만 미국 장악력은 약해지는 시대

부작용 1 — 미국 은행 양극화

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 가져오는 부작용 첫 번째 — 미국 은행 양극화. 미국은 4,000개 가까운 중소형 은행이 있는 나라(주 정부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는 지방 자치 구조).

중소형 은행은 저원가성 예금(보통예금)이 마진의 핵심 — 0.1% 이자로 받아서 5~6%로 대출. 여기서 돈이 빠지면 마진 폭락 + 수수료 수입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회.

반대로 JP모건 같은 초대형 은행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새로운 수익 원천으로 삼으려 합니다. [JPM Coin \(티커 JPMD\)이 Coinbase의 Base 블록체인에서 출시](#) — B2C2·Coinbase·Mastercard와 통합 완료. 2026년 Canton Network까지 phased rollout 진행 중. (+2)

강사 진단: "JP모건이 0.2% 수수료라도 시장을 다 먹으면 자기가 유리" — 큰 그림이 실제 가시화.

미국 은행 양극화 — 중소형 vs 초대형

구분	스테이블 코인 영향
4,000개 중소형 은행	보통예금 감소 + 수수료 수입 감소 → 마진 폭락
JP모건 등 초대형	JPMD 발행 + Coinbase Base 출시 — 시장 장악

+2 JP모건 JPMD 출시 jpmorgan.com

부작용 2 — 단기 금융시장의 가뭄

두 번째 부작용 — 단기 금융시장 가뭄. MMF의 자산 구성은 절반 미국 국채 + 절반 **미국 기업어음 (CP)**.

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보유 룰이 **현금 또는 미국 단기국채만** — 기업어음은 살 수 없습니다. MMF에서 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지면 미국 국채 사줄 자금은 늘어나지만 기업 운용 자금은 줄어듭니다.

결과 — 미국 단기채 금리와 기업어음 금리의 **스프레드 확대 위험**. 지금은 찻잔 속 태풍(\$3,000억 수준)이라 큰 문제 없지만 1조 / 2조 달러 넘어가면 본격화. 미국 정부는 더 싼값에 자금 조달하지만 미국 기업은 더 높은 금리 부담 — 또 하나의 양극화 시작.

이건 다음 본강의 part2_01(채권과 금리)에서 단기·장기 금융시장 분리 메커니즘으로 본격 풀이될 영역. 강사가 미리 짚어둔 사전 기초.

미국의 희망 = 신흥국 약탈 메커니즘

스태이블 코인의 진짜 목적이 신흥국 약탈인 이유를 메커니즘으로 따져봅니다. 신흥국 사람들이 자국 통화 불신으로 예금을 빼서 스태이블 코인 매수하면:

첫째 신흥국 투자에 쓰일 돈이 미국 국채로 흡수됩니다. 둘째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리 낮춰 경기 부양하려고 해도 그 돈이 다 스태이블 코인으로 가서 정책이 무력화. 셋째 자국 통화 가치 급격히 하락. 넷째 외환 위기 / 금융 위기 가능성 폭증.

결국 신흥국이 자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잃고 미국 국채 시장의 자금 공급원으로 전락하는 구조 — 강사가 "미국은 싼값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지만 신흥국은 큰 대가를 치른다"고 짚는 시대 메커니즘.

여러분이 이미 경제 뉴스에서 본 환율 급변동·통화 폭락 사례들 — 그 배후에 이런 자금 흐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. 다음 카드에서 "왜 신흥국은 못 막나"를 봅니다.

왜 신흥국은 못 막나? — 자본 통제 마비

강사가 짚는 핵심 질문 — 신흥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 막지 않나? 답: **막을 수가 없습니다.** 막고 싶지 않아서 안 막는 게 아닙니다.

이유 첫째 —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앙화. 개인들이 몰래몰래 거래하는 걸 철권 통치 국가가 아닌 한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. 결과 **자본 통제 수단**의 마비.

이유 둘째 — 미국의 외교 압력. 감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막겠다고 규제하면 그 나라에 강력한 규제나 관세 보복. 신흥국 입장에서선 결국 미국 압력에 밀려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

중국만 CBDC(중앙은행 디지털 화폐) 발행으로 막으려 별짓 다 하고 있고, 남미는 막을 방법을 못 찾는 중. 그래서 "어떤 나라 통화가 위험하냐"를 물으면 — 물가 높아지는 신흥국 + 통화 가치 떨어지는 신흥국은 점점 더 가파른 속도로 외환·금융 위기에 노출됩니다.

다음 카드에서 실제 진행 사례 —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를 봅니다.

아르헨티나·튀르키예 — 디지털 달러화 진행

강사의 진단이 정확히 실현 중인 두 나라. [아르헨티나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전체 암호화폐의 61.8%](#) — 라틴 아메리카에서 2위 시장으로 부상. 2023-07~2024-06 \$93.9B 거래량 + 매일 결제·B2B 무역 금융까지 활용.

튀르키예는 [USDT/TRY\(리라\) 페어가 Binance에서 \\$22B로 1위](#). 인플레이션 2025-10 기준 32.87% — 리라화 가치 폭락 흐름이 스테이블 코인 매수로 직결.

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에서 사실상 "디지털 달러화(Digital Dollarization)"로 작동 중.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USDT가 사실상 그 나라 결제 수단이 되는 시대. († 4)

아르헨티나·튀르키예 — 디지털 달러화 정량

국가	스테이블 코인 사용 정량
아르헨티나	암호화폐 거래의 61.8% — 라틴아메리카 2위 시장 / \$93.9B 거래량
튀르키예	USDT/TRY \$22B Binance 1위 / 인플레이션 2025-10 32.87%

† 4 신흥국 디지털 달러화 사례 letstalkbitco.in

미국에도 약점 — 코인런·예금 보험·중앙은행

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 유리하게 설계됐지만 약점도 있습니다. 강사가 짚는 3가지:

통제·감독 — 은행은 정책 당국이 아주 철저하게 통제·감시하지만 코인은 그만큼 강력한 통제가 없습니다. **예금 보험** — 은행은 FDIC 보험으로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지만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. **중앙은행 직거래** — 은행은 돈 없으면 연준이 직접 돈 찍어 공급해 뱅크런 막을 수 있지만 코인은 그런 시스템 X.

테라·루나 사태 때 코인런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다만 테더·서클이 안전 자산(미국 단기채)만 보유해서 가능성은 낮음. 발생 시 연준이 간접적으로라도 돈 공급할 것으로 추정 — 강사 진단.

은행 vs 스테이블 코인 — 약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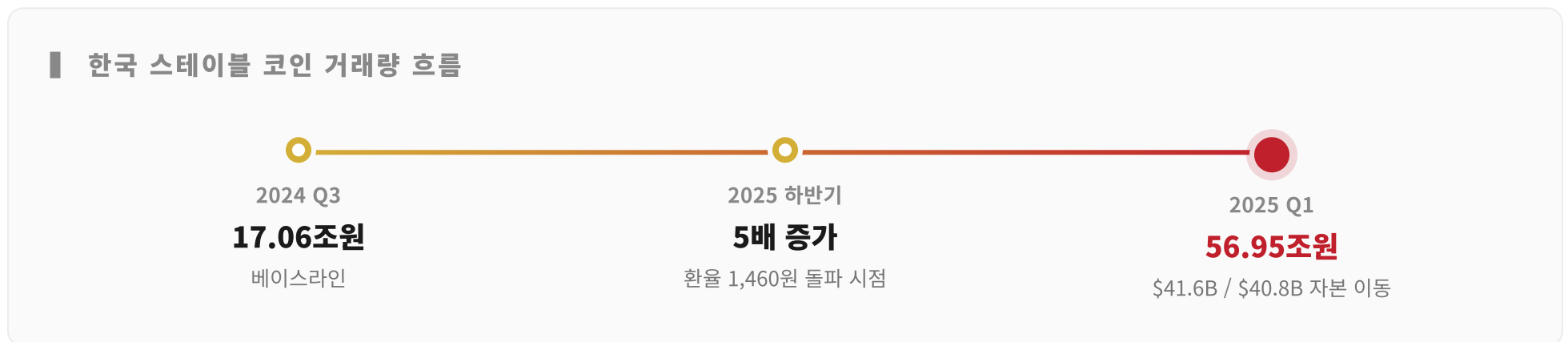
위험 요소	은행 vs 스테이블 코인
통제·감독	은행 철저 / 코인 약함
예금 보험	은행 있음(FDIC) / 코인 없음
중앙은행 직거래	은행 가능 / 코인 불가

한국 — 25 Q1 거래량 3배 증가

한국도 신흥국 대접에서 못 벗어나는 현실. 강사가 짚은 정량: 2025 하반기 환율 1,460원 처음 돌파 시점에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5배 증가.

강의 후 추가 흐름은 더 분명해졌습니다. [2025 Q1 한국 USD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56.95조원 \(\\$41.6B\)](#) — 2024 Q3 17.06조원 대비 3배 증가.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\$40.8B 자본 이동, 절반이 USDT·USDC 같은 외국 스테이블 코인. (+3)

물가 오르는 신흥국이 약탈 대상이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신흥국 대접 — DeFi로 5% 이자 우회로까지 더해져 환율 약화 시 스테이블 코인 매수 동기가 강함. 한국인 입장에서 시장 성장 속도 + 환율 변동을 함께 지켜볼 필요.



강의가 짙은 관찰 신호 4가지

본 회차에서 강사가 명시한 관찰 권고는 명확합니다 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 속도 매월 관찰 + 미국 단기채 vs 기업어음 스프레드 모니터링 + 한국 환율과 국내 거래량 함께 관찰 + 추천 도서 3권 일독 권장.

강의 결론은 분석·관찰 톤이 압도적입니다. 스테이블 코인이 7년 만에 60배 폭증해 미국 부채 절반을 커버할 잠재력이 있지만 — 그 돈의 진짜 목표는 신흥국 약탈이고, 자본 통제가 사실상 마비된 시대. SWIFT 우회로 달러 패권은 강해지지만 미국 장악력은 오히려 약해지는 묘한 시대.

한국도 환율 1,460원 돌파 시 거래량 5배 증가 → 25 Q1 3배 증가로 본격화. 다음 강의에서 베센트 단기채 정책과 신호등 룰북 + 단기·장기 금융시장 분리를 본격 다루실 예정.

스테이블 코인은 7년 만에 60배 폭증했고 미국 부채 절반을 커버할 잠재력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돈의 진짜 목표는 신흥국 예금 약탈 — 자본 통제가 사실상 마비된 시대입니다. SWIFT 우회로 달러 패권은 강해지지만 미국 장악력은 오히려 약해지는 묘한 상황이고, 한국도 환율 1,460원 돌파 시 국내 거래량이 5배 증가한 신호가 한국이 신흥국 대접에서 못 벗어남을 보여줍니다.

다음 강 — Part 2-1강

돈 가격을 알아야 돈 번다

단기·장기 금융시장 분리 + 미국 10년물 5% 발작 버튼 신호등 룰북

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외부 자료(+1~+4)는 강의 시점 이후의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강합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